

2013학년도 제W학기

이화여자대학교

자기설계 해외탐사 보고서

민관협력과 주민자치를 통한 영국의 마을 재개발과 재생

팀명: Co-munity

목 차

I. 서론

II. 본론

i. 한국에서의 사전 탐사

1. '[마을캠프] 마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7회차 강연
- '마을TV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 미디어, 마을을 담다'
2. <마을의 귀환> 저자 홍현진 기자님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홍보담당 유은옥씨
4. 은평 e-품앗이
5. 지역문화 성과공유포럼
6. 서울시 마을기업 토론회
7. 서울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조은득씨
8. 얼티즌 허브

ii. 영국의 마을공동체 탐사

1. Brixton Market
2. Lambeth Council의 Future Brixton
3. Brixton Green
4. CIC Association
5. Brent Council의 재개발 사업과 Meanwhile Project
6. Calton Kitchen
7. The Albert
8. Headingley Development Trust

III. 결론

IV.참고문헌

부록 : 일정표 및 인터뷰 전문

I. 서론

“우리에게 있어서 ‘마을’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탐사는 시작되었다. ‘마을공동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는 학교의 ‘나눔리더십’이란 과목을 통해서였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우리는 왜 지역사회 공동체를 논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었다.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았다. “사회의 공동 구성원들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나눔 사회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작은 실천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첫 공간이 바로 지역사회이자 마을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지만 우리는 ‘마을공동체’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은 삶이 이루어지는 장을 중심으로 작은 커뮤니티들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관계망이자 생활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이 사라졌다. 즉, 사람들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된 현대사회 도시를 살아가는 이들에겐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도시에서도 마을이 가진 공동체적 가치를 복구하자는 목소리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였고 지역적으로도 자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2011년 박원순 서울 시장의 취임 이후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에서 중대적인 ‘정책’ 중 하나가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자치적인 마을공동체와, 이 밖에도 다양한 마을공동체들이 활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는 880여개의 사업 참여자와 모임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¹

‘마을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생활이 있는 도시’를 가능케 한다. <마을로 가는 사람들>의 저자 중 한명인 조명래 씨에 따르면, ‘생활이 있는 도시’란 집안, 즉 가정에 갇힌 폐쇄적인 사적생활세계를 벗어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확장된 공공적인 생활세계가 있는 도시를 말한다. 사적생활세계가 공공영역으로 제대로 확장될 때, 우리의 삶의 지형은 심대한 변화를 겪는다. 우선 확장된 생활세계는 공간적으로 폐쇄적인 주택단지와 구분되는 열려진 마을과 같은 공동체공간을 만들어낸다. 경제적으로는 생협과 같은 호혜 및 협동경제, 문화적으로는 함께 향유하면서 나다움을 구현하는 공유문화를 만들어낸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관치(官治)와는 다른 협치(協治)에 의한 확장된 생활세계의 자율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²

공공영역으로 확장된 생활세계는 이렇듯 대안 경제를 열고 대안문화를 만들며 대안정치까지

¹ 서울특별시 □□□□□ □□□□□□ □□□□ www.seoulmaeul.org/

² 인간도시 컨센서스, 『마을로 가는 사람들』, 알트, 2012

지 작동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대안공간인 ‘마을’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인간의 일상에서의 삶이 영위되는 공동공간으로서의 생활세계이자 공동체의 관계성을 지탱하는 생활사회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그 자체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에 기반을 두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뤄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인들에게 마을은 개별화된 공간으로서 중간 정거장의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확장된 생활관계는 물론 마을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재 속에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낀 서울시의 노력은 생각만큼의 성과와 관심을 얻지 못했다. 마을주민의 자발성이 부재한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은 무의미하며,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난 뒤면 마을사업은 실패로 끝이 났다. 이는 지속적인 지역의 재생과 재개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양산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낙후된 생활과 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환경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을 타파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탄탄한 마을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협동조합과 사업체 연합을 통한 사회적인 이익창출이 나타났으며, 수도 런던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여러 공동체가 확산이 되어 있다. 이렇듯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을 탐사해 영국에서처럼 한국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특히 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재생과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에 초점을 맞춰 이 탐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탐사 주제를 “민관협력과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재생과 재개발”로 잡아, 영국에서 마을공동체가 꾸준히 발달해올 수 있었던 사회적 환경과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했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젊은 계층의 마을공동체 참여’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함께 조사해서 한국사회의 마을공동체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론1에서는 우리가 다녀온 한국의 마을공동체와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과 우리의 인터뷰 및 활동내용을 적을 것이다. 본론 2에서는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혹은 기업의 도움과 함께 마을사람들의 자치적인 활동으로 그들 마을만의 경제활동을 지속해나가 발전을 꾀한 Brixton, Wembley, Headingley, South Kilburn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기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인터뷰 및 활동내용 통해 영국의 마을공동체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마을공동체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서론’과 ‘본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탐사를 통해 얻은 탐사주제 및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자 한다. 또한 본론에서 다루었던 한국과 영국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의 개인적인

소감과 한국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조연을 적고, 본 글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글을 끝낼 것이다.

II. 본론

i. 한국에서의 사전 탐사

1. '[마을캠프] 마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7회차 강연 - '마을TV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미디어, 마을을 담다'

1) 기관 설명 및 배경



<그림 1> 마을캠프 강연장



<그림 3> 마을캠프 강연장

해외 탐사 최종 면접에서 합격한 뒤, 한국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주최하는 마을 공동체 7주 강연시리즈인 '[마을캠프] 마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참석했다. 마을캠프는 매주 목요일마다 각 주제별로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대표 주민이 강연자로 나와 해당 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참가 시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³ 우리가 참석한 마을캠프의 주제는 '미디어 담다'로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활동을 다루었으며, 도봉구의 마을신문인 도봉 N의 발행인 이창림씨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이며 미디어엑트 부소장인 이주훈씨가 강연자로 참석하였다.

2) 기관에서의 활동

(1) 도봉 N

도봉 N은 2009년에 창간되어 2013년 11월 기준 43호가 발행되었으며 현재는 마을신문 뿐 아니라 영상, 인터넷 라디오 등 주민들에게 미디어 활동을 전파하고 있다. 도봉

³ <http://www.acrofan.com/ko-kr/live/news/20131013/00000021>

N은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시민기자, 배포자원활동가, 그리고 후원자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들은 모두 도봉구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창림씨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민들 간의 소식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마을 신문을 준비했다. 마음이 맞는 주민들과 모여 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마을공동소식지의 형태로 마을 신문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후원금을 되돌려 주고 마을 신문 사업은 잠시 주춤했으나, 다음 해 육백만원을 다시 후원 받아 재추진했다. 그러나 또 다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창림씨는 그 다음해야 도봉 N 첫호를 발간할 수 있었다. 현재 도봉 N은 서울시와 주민 후원자들에게 소정의 돈을 후원 받고 있으나 도봉구청에는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도봉 N의 특징은 기존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조명한다는 것이다. 마을 신문에는 ‘도봉인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마을의 스님, 작가, 옷 수선집 아주머니, 폐지 줍는 어르신, 김밥집 사장님, 시인, 구청 음악회 디렉터 등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한 뒤 인터뷰 기사를 신는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도봉 N만의 독립적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도봉 N은 어느 한 공간에 터를 잡지 않고, 여러 공간을 이용한다.

도봉 N에서 진행하는 영상 활동으로는 영상과 신문의 형태를 결합한 ‘보이는 마을신문’, 마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톡톡 도마토리(도봉구 마을스토리)’, 음악칼럼인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등이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로는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마을예술창작소의 매니저, 떡집 사장님, 꽃동네 1인 기업가가 모인 ‘이제는 3김 시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며 영화를 좋아하는 주민이 DJ가 된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야구를 좋아하는 주민들을 위한 ‘와일드피칭’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도봉 N은 이러한 영상, 인터넷 팟캐스트 진행 뿐만 아니라 마을의 북카페에서 작은 강좌를 열고 있다. ‘도봉 N 좋아서 하는 강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 수업은 현재 마을 북카페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사진, 커피, 드로잉, 협동조합, 힙합과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좋아서 하는 강좌는 강의를 들으러 오는 주민들에게 이를 주최하는 도봉 N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강좌에 참석하는 마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마을 신문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좋아서 하는 강좌의 특징은 강사들이 도봉 N 신문의 운영진들과 같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강사가 외부인이 아닌 주민으로 구성되어있을 경우에는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관계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3년 5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미디어엑트에서

맡고 있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기존에 마을에서 활동한 사람, 하고자 했던 사람, 혹은 평소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마을미디어로 끌어모으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마을미디어 사업은 미디어를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미디어를 필수적 도구라 인식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미디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디어 권리란 첫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받을 권리, 둘째, 미디어를 뜻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전수받을 권리, 셋째, 만들어진 미디어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눌 권리를 말한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이러한 권리를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도와준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지향하는 정보전달의 경로는 쌍방향적, 수평적이며 다원화된 관계로, 수목적 관계인 전통적 정보전달의 경로와 반대이다. 즉, Hierarchal system⁴에서 Rhizomic system⁵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목표는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건설이다. 이주훈씨에 따르면 미디어는 보다 많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들여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에 고립된 사람들을 잇게 한다.

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며, 소통과 문화의 장, 여가와 만남의 장, 그리고 작은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을미디어에는 신문, 라디오, TV, 잡지 등이 포함 된다. 즉, 마을미디어는 미디어가 매개가 되어 주민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소통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으로 미디어 교육, 미디어 공방, 네트워크 구축, 미디어 축제, 정책연구 아카이브, 장비 및 시설지원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이 향상되며 문화 향유권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마을미디어 공동체 모델링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민이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을 미디어 생태계 구현이 가능해진다. 결국 미디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마을에게 주어진 과제는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마을 주체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마을차원의 마을미디어 인식 및 정보교류가 일어나야한다는 것이다. 마을 뿐 아니라 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마을 미디어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미디어 모델링 및 마을에 특성에 맞는 개별화를 지원해야한다. 또한,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강화 및 자발적 운영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마을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의 대안구조를 마련해야한다.

⁴ 각 프로그램이 군집을 형성하여 계층구조를 이루는 네트워크의 도식

⁵ 프로그램의 군집이 해체되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도식

3) 소결론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연회엔 비록 마지막 한 번만 참석했지만 그 이전의 강연 주제들도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일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도봉 N의 사례 발표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마을공동체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었으나 마을신문의 홍보가 부족했다. 마을신문을 제작했지만 이를 구독하는 사람이 적어 인쇄부수가 3만 부에서 현재는 만 부로 줄어들었다. 이는 도봉 N의 마을 신문뿐 아니라 다른 마을컨텐츠들도 제작된 뒤에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문제점은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마을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줄어들다면 마을컨텐츠의 존재 여부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마을컨텐츠를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봉 N 마을 신문의 경우에는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문을 배포해 학생들이 지역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일환으로 마을 신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마을컨텐츠의 지속을 위해 적절한 마케팅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들은 직접 제작한 마을컨텐츠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강의에서는 미디어를 권리로 생각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누구에게나 익숙한 미디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재생을 이야기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 생각했다. 미디어의 활용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기에 미디어는 마을공동체를 알리고 사람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쉽게 참여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마을의 귀환> 저자 홍현진 기자님

1) 기관 설명 및 배경

2013년 12월 3일 책 <마을의 귀환>의 저자 중 한명이신 홍현진 기자님을 찾아뵈었다. <마을의 귀환>은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에서 서울과 잉글랜드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1년여 간의 취재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외롭고 각박한 도시에서의 삶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된다. 도시인의 삶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숲,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혀 소통의 기회를 잃었던 사람들이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마을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 실마리를 서울과 잉글랜드의 도시공동체 26곳에서 찾았다.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영국 잉글랜드의 혁신적인 공

동체를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처럼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책인 <마을의 귀환>은 우리가 처음 주제를 잡고 기틀을 마련할 때 큰 도움을 주었다. 이에 탐사의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오마이뉴스팀에게 연락을 드리고 찾아 보았다.

2) 기관에서의 활동 및 인터뷰

영국 마을공동체의 탐사 주제와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각 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그 당시의 일정대로라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방문만 하고 끝나서 본래의 탐사목적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탐사일정과 주제를 수정했다. 우리의 탐사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제를 하나로 좁히기로 결정하였다. 오마이뉴스팀은 영국의 지역 맞춤형 공동체와 자산 소유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취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기자님과 함께 고민해본 결과 한국에 적용시키기 쉬운 ‘민관협력’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또한 기자님은 취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터뷰 혹은 취재가 주요 일정이었지만, 우리는 대학생으로서 마을공동체에 직접 참여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해주셨다. 따라서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주를 이루었던 일정에 다양한 마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취재 당시 영국 기관과의 연락을 담당했던 임소정씨와 연락을 하여 영국 기관과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었다.

3) 소결론

<마을의 귀환>을 연재한 ‘오마이뉴스’의 홍현진 기자분과 연락하여 그들이 취재했던 영국의 마을공동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탐사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 주제를 잡고 기틀을 마련할 때는 물론, 영국 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홍현진기자님은 많은 도움을 주셨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에너지 마을, 예술 마을, 공정무역 마을 등 너무 많은 테마를 가진 마을을 방문하여서 자칫 처음 잡았던 탐사 주제의 의미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관협력이라는 하나의 큰 테마에 집중해 좀 더 분명한 탐사주제와 목적을 세웠다. 또한 인터뷰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마을공동체를 직접 체험해보고자 했다.

이에 탐사주제를 “‘민관협력’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영국의 마을공동체 탐사 및 청년들의 역할 관찰”로 수정했다. 이후 활동을 공동체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인 적극적인 ‘관’의 도움과 ‘민’의 주체적인 활동에 대해 마을 의회와 회의 장소에서 관계자 분들을 만나 탐구해볼 수 있도록 잡았다. 이에 맞춰 2차 수정 계획서를 마무리했다.

⁶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마을의 귀환』, 오마이북, 2013.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홍보담당 유은옥씨

1) 기관 설명 및 배경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는 민(民)과 관(官)의 협력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풀뿌리성, 호혜성, 협동성 이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여기며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계별 맞춤형 주민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 이뤄지는 크고 작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교류가 활성화 되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⁷

유은옥씨는 서울시에서 주최했던 ‘마을캠프’을 방문하여 만났던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홍보담당자 분이다. 마을캠프에 방문했을 당시 우리에게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자기설계 해외탐사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우리의 탐사주제와 목적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그 설명을 들으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연락이 닿았다.

2) 기관에서의 활동

영국방문보고서 파일을 받고 영국 마을공동체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2002년 11월 4일 (일) ~ 10일 (토)에 영국 브리스톨, 브릭스톤, 해크니를 방문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보와 서울 마을지원센터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보고서를 받아서 참고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2002년으로부터 대략 12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때와는 또 달라진 영국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아 마을공동체 뉴스레터 ‘서울마을이야기’ 11호에 우리의 영국 마을공동체 탐방기를 신게 되었다. 서울마을이야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마을 안의 이야기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돕기 위한 웹진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을'이란 무엇일까?" 라는 부제목으로 시작된 칼럼은 그림 3과 같다.

1<그림 > 서울마을이야기 vol.11 서울에서 마을로 가는 길 - ‘마을을 찾아서’

⁷ 서울특별시 □□□□□ □□□□□□ □□□□ www.seoulmaeul.org/

한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영국의 마을공동체로 떠나다

김민아 | 2018년 11월 15일 | 10:00

주변을 보거나 참여하는 지역 자원개발

영국에 진출한 대기업은 '지역 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자원개발이란 지역 내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 '지역 자원개발'이란?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브릭스톤 시장, 그곳에는 사람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 '지역 자원개발'이란?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 '지역 자원개발'이란?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 '지역 자원개발'이란?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나은 공동체를 위한 주민교육, 책읽기, 자원 순환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나은 공동체를 위한 주민교육, 책읽기, 자원 순환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나은 공동체를 위한 주민교육, 책읽기, 자원 순환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뉴스레터 '서울마을이야기'
http://www.seoulmaeul.org/bbs/board.php?bo_table=webzin_bbs&wr_id=76&sfl=wr_4&stx=12

4. 은평 e-품앗이

1) 탐사 배경

우리는 영국의 '브릭스톤 마켓 Brixton Market'를 탐사하기로 계획했는데, 브릭스톤 마켓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브릭스톤은 지역화폐로 실물화폐를 사용하여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은평 e-품앗이와 차이점이 있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는 것과 그것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보여 은평 e-품앗이를 탐사를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에서 브릭스톤 마켓의 탐사 후 한국의 지역화폐와 영국의

지역화폐가 어떻게 다른지, 가상화폐와 실물화폐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 기관 설명

은평 e-품앗이는 서울 e-품앗이에 속하는 지역 품앗이이다. 서울 e-품앗이란 서울 시내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동체 화폐를 통해 회원들의 품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이다. 1:1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던 종래의 품앗이 제도를 확장해 품앗이 회원들 사이에서 누구와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자간 품앗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거래 품목은 상담, 수리, 돌봄 등의 품과 의류, 가구, 식품 등의 물품이다.

3) 기관에서의 활동

지난해 품앗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품앗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소감을 말하는 것으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품앗이 활동을 참고하여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의 품앗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뒤따라 진행되었다. 이들은 소모임을 품앗이 참여 활성화의 이유로 꼽았는데, 이는 소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은 자신의 품을 팔고, 소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가비 등을 지역화폐인 문으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일부 금액을 문으로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런 소모임과 지역화폐 가맹점이 청소년들이 문을 사용하고 품앗이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2부에서는 1월의 품앗이 코칭교실이 진행되었다. 품앗이 코칭교실이란 품앗이 거래 행사에서 거래를 중재하고, 행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강의이다. 2013년도에 36번 이상의 품앗이 놀이학교 만찬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화폐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통용되는지 직접 보여주었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와 테이블 매니저들이 필요하나 매 행사 때마다 사회자와 테이블 매니저들이 바뀌어 꾸준히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기 어렵기에 사전 연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매달 꾸준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품앗이 코칭교실은 긴장감을 깨는 아이스 브레이크, 품앗이 활동, 활동을 도와주는 테이블 매니저의 모의연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참관한 품앗이 코칭스쿨의 모의연습 대상은 청소년들이었다. 품앗이 활동은 주고 싶은 품, 물품과 받고 싶은 품, 물품을 먼저 말하고, 각자 적당한 가격을 매겨 서로 교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품앗이 코칭교실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모의연습에 대해 각자 평가를 하고, 의견을 나눈다. 이는 품앗이 코칭교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은평 e-품앗이 전 운영담당자는 마을 공동체 내의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품앗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래 서대문구 구청에서 집수리 담당했던 그는 집수리가 끝

난 뒤 그 사람과는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주면 관계가 끝났다.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은평구에 이사를 온 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부터 이런 활동을 시작하였다.

은평 e-품앗이에서는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진행되었던 소그룹은 목공교실이다. 이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소그룹으로 분화되었다. 소그룹 활동은 지역화페로 지불되고 있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품앗이의 소그룹은 계속 관계 지속될 수 있다. 은평e품앗이 관계자는 이것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품앗이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 전통적인 품앗이의 신뢰 공동체를 가장 살리려 했다. 품앗이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진전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웃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챙기려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이웃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신뢰 공동체를 중요시 하였다. 품앗이 활동은 청소년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고 있었다.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롤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e-품앗이는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용할 공간이 없어 구청장에게 직접 찾아가 주민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10여년 이상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았던 주민센터가 토요일에도 주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이는 마을에 e-품앗이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관과의 협력관계 없이는 마을 활동이 지속되기 힘든 것을 깨닫고 그들은 6회에 걸쳐 약 6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e-품앗이와 지역화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여 공무원들이 이 활동과 지역화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은평e품앗이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강조했다. 지역화페와 같은 공유 문화를 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공유 문화로 새로운 문화 창출을 하고 자치구마다 존재하는 마을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공유라는 틀 안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요시 했다.

3) 소결론

은평 e-품앗이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페인 문은 가상화페이다. 코칭 스쿨 전에 진행되었던 회의에서 은평 e-품앗이 운영회장은 자신에게 문을 실제 화페로 바꿀 수 있는 지 건의가 들어왔던 일을 이야기했다. 건의를 한 사람은 문을 실제 화페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가상화페인

문이 실물화폐로 바뀐다면 사람들은 문의 이용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서의 문의 역할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촉구하기 쉽고, 이는 결국 주민들의 지역화폐 사용률로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은평구의 재정상황은 가상화폐의 일부를 실물화폐로 변환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다. 때문에 앞으로는 가상화폐의 실물화폐로의 변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5. 지역문화 성과공유포럼

1) 기관 설명 및 배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1년부터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하는 지역문화 교육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역문화 성과공유포럼은 사업 시행 4년 차를 맞이하여 ‘문화로 지역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실행되었던 사업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성장시켜온 문화기획자의 성공노하우를 듣는 지식공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공동’이란 말 속에서 공동공간, 공동문화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공간은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는 마을 주민들의 교감을 이끌어낸다. 때문에 문화가 실제로 마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러한 문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지역문화 성과공유포럼에 참석하였다.

2) 기관에서의 활동 및 인터뷰 내용

다음은 지역문화 성과공유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된 문화사업의 네 가지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4> 파출소가 돌아왔다 PT 발표

(1) 파출소가 돌아왔다

‘파출소가 돌아왔다’는 문화관광부가 지원하고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여 군포시와 경찰서의 협력으로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프로젝트이다. 군포시내에는 폐쇄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부지가 세 곳, 치안센터로 활용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폐쇄될 경우 불용 처리되면 헐어서 시로 반환되거나 자산관리공단으로 귀속된다. 헐리기 전까지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작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하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공모에 당선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사업비 1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아 군포경찰서, 도장파출소, 당정파출소, 재궁파출소, 금정파출소, 산본파출소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군포경찰서에서는 벽화 사업인 ‘새벽길’을, 도장파출소에서는 ‘가야마을 목공소’를, 당정파출소에서는 ‘공단마을 문화공작소’를, 재궁파출소에서는 청소년 마을탐사대 ‘청파랑’을, 금정과 산본파출소에서는 군포국제예술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의 목표는 총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목표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방치된 파출소 공간의 재활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 친화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로는 주민참여 문화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재능활용 및 창작 공간의 확보 필요성을 해결하고, 지역현안문제의 발굴과 해결이다. 세 번째 목표는 국제 예술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작가레지던시활동으로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 목표는 문화재단 활동역량강화로 재단직원의 사업 기획 및 실행 능력 향상을 개발하고 지역재원발굴로 문화예술공동체 조직역량강화가 포함된다. 2013년 7월 16일 시민공개워크숍을 시작으로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파출소의 빈 공간들이 변화되었다. 총괄기획과 행정실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군포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창작 레지던시에 참여한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 시민과 교류하며 다양한 협력작업들이 추진되었다. 사업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감하는 전시와 공연 그리고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사업의 성과로는 지역의 유휴공간화 된 파출소공간이 문화적, 예술적 활용의 첫 사례가 군포가 되었다는 점, 경찰관과 문화예술인 사이에 협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점, 벽화 모임, 밴드 모임, 연극모임이 새로 구성되는 성과와 책 두레 모임의 역량강화로 이어지고 재단 내부 본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체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군포가 국제적 창작의 산실로 국내외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지속을 위한 마땅한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점,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여 충분한 동력을 끌어내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국제레지던시프로그램에서 작가들과 주민, 공간 사이의 매개역할을 원활히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았다.

(2) 슬슬(Slow Slow) 놀이터 : 지역문화산업의 사례 및 건강한 기획

전북 익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산업으로 전문가들이 기획한 두 가지 문화사업 사례와 시민들이 기획한 두 가지 문화사업 사례가 있다. 먼저 전문기획 문화사업으로는 익산 국제퍼포먼스아트페스티벌과 노상방예 프로젝트, 콩닥콩닥 Day가 있다. 익산국제퍼포먼스는 지역과 국제예술의 합작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개최되었다. 노상방예 프로젝트는 익산 창작공간 레지던시로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일상 공간에 넣는 활동을 한다. 이런 활동으로 일상은 예술이 되고 예술은 일상이 된다. 콩닥콩닥 Day는 주민 노래자랑대회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나 뒤섞이지 못했던 주민들과 예술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기획 문화사업으로는 사단법인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문화이모작사업인 슬슬놀이터가 있다.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상설공연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예술향유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슬슬 놀이터는 황동마을의 할머니들이 모여 조각보를 만드는 문화사업이다. 황동조각보에는 황동마을만의 색과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이는 매체에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문화사업 추진 이후 할머니들은 일에 동참하고, 먼저 움직이고, 스스로 하는 등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이는 마을이 문화마을로 변하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밀착형문화사업을 진행할 때는 건강한 기획이 필요하다. 현장의 모든 것과 유대관계가 긴밀하며, 기획자 중심 시선이 아닌 현장 중심 시선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이 건강한 기획의 시작이다. 기획자와 사업자 그리고 대상자가 일상의 맥락을 함께하는 사람, 공간에 대한 맥락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상과 삶의 맥락을 이어가는 내용이 좋다.

(3) 송파구 즐거운가 : 즐거운 가?

즐거운 가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문화공간이다. 즐거운 가를 통해 아줌마 밴드, 청년밴드, 학생밴드, 댄스동아리, 요리동아리, 연극동아리, 바느질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뿐 아니라 즐거운 가에서는 악기강습도 진행되는 등 즐거운 가는 마을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즐거운 가를 통해 마을 문화 만들기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국수나눔잔치, 청소년문화존,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단오맞이 문화한마당 등이 그것이다. 단오한마당은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이를 통해 지역축제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그 네트워크는 송파의 마을넷으로 진화하였다. 이렇듯 문화라는 매개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만나며 기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지역 안에서 활동하다보니 재정적인 압박감이 항상 느껴졌다. 작은 규모라도 그 공간과 상근자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재정부분이 안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일상의 예술화 프로젝트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개최한 원주문화재단은 장기적 문화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문화예술계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워크숍, 기획 회의, 공청회 등을 열었고, 이때 나온 의견들은 다음의 두 가지 큰 주제로 수렴된다. 첫째는 도시의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을 근거로 펼쳐지는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과 문화공간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것이 바로 2013원주다이내믹 페스티벌이다. 생활예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축제의 형태로 열린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의 핵심프로그램인 댄싱카니발에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학교, 일반 동아리 팀들이 대거 참가하였으며, 약 60%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었다. 시민들의 일상적 문화 활동 발표장이 축제가 되고 축제가 일상이 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예술로 연주하는 시장 활동이다. 예술로 연주하는 시장은 재래시장의 유희공간과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연결시키고 시장상인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재래시장을 문화시장으로 조성해 시장 유입인구를 확대시키는 것이 최종목표였다. 주요 성과로는 중앙시장 유희공간의 홍보, 시장 상인들의 문화적 관심 유발, 중앙시장 공공화장실 보수, 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를 들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생활예술 매개자, 예술가, 기획자,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

3) 소결론

문화 사업 성과공유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는 한국의 마을공동체에서 진행되는 문화사업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니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과 같이 문화사업이 지역의 대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지역 축제는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경찰서가 돌아왔다'와 '즐거운 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자립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주체가 스스로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충분

히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들을 교육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 기간을 관리 기간으로 정해 이들의 자립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서울시 마을기업 토론회

1) 기관 설명 및 배경



<그림 5.6> 서울시 마을기업 토론회

서울시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정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마을기업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4년 1월 16일에 마을기업 토론회를 열었다. 마을기업 운영자, 인큐베이터, 사회적 경제 관계자, 일반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성공적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개 기업의 창업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마을기업 당사자, 인큐베이터, 멘토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참석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⁸ 마을기업이란 주민 욕구 및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의 미션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범용적 수단으로써의 기업을 뜻한다. 마을 주민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협동조합 원리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다.⁹

우리가 방문할 영국의 CIC Association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관을 사전에 방문하여 한국의 마을공동체 상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에 서울시 마을기업 토론회에 방문하게 되었다.

⁸ <서울시, '2014 마을기업 토론회' 개최>, 뉴스1, 2014. 01. 16

<http://news1.kr/articles/1497817>

⁹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웹진 10호, <마을의 사업과 정책>, 2014. 02. 19

http://www.seoulmaeul.org/bbs/board.php?bo_table=webzin_bbs&wr_id=73&sf1=wr_4&stx=5

2) 기관에서의 활동

1부는 4개 마을기업의 사례 발표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마을기업은 엄마들의 간식가게, 중랑구 ‘감성마을’이다. 엄마 커뮤니티에서 시작하여 엄마표 친환경 간식 사업을 시작한 마을기업이다.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위한 보드게임, 생태체험, 한지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작했던 것을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간식가게인 마을기업을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마을의 또 다른 다리가 되어 주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마을기업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발표를 마친 강명신 대표에게서 부모의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마을기업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인형극단인 동대문구 ‘모두협동조합’이다. 결혼한 이주여성과 한국 엄마들이 모여 만든 마을기업으로 그들과 그녀의 자녀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엄마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며 이를 통해 이익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엄마나라의 동화를 인형극으로 만들고, 전통요리를 만들고, 외국어로 읽어주는 동화집 스토리텔링,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 교육 등을 서울의 여러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해 왔다. 마을기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내며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곳곳하게 마을기업을 지속하고 있는 모두협동조합이 더 많이 번창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세 번째 마을기업은 ‘따로 또 가치’ 브랜드로 승부하는 중구의 ‘신중부시장협동조합’이다. 예전에는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전통시장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뭉쳤다. 57년 역사를 지닌 중구시장이 상인과 마을활동가를 주축으로 ‘따로 또 가치’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각각의 상인들이 내놓은 상품을 패키지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최상의 견어물을 신속하고 위생적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발표를 맡은 박창옥 이사는 “신중부시장은 상인만이 아니라 디자이너, 영업 등 다양한 이들이 뭉쳐 말 그대로 융합한 사례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지 말고, 다양한 이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며 한국의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네 번째 사례는 마을에서 놀던 청년들이 직접 만든 마을 카페인 서대문구 ‘얼티즌 허브’다. 장소가 슬럼화 된 이대 뒷골목이고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기에 더욱 집중해서 봤던 마을기업이었다. 이대 뒷골목에 자리 잡은 얼티즌허브는 다양한 마을 활동의 무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4층 공간은 공연장, 카페, 세미나 및 사무공간으로 이루어져있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2부에서는 마을기업 당사자인 김상섭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준비모임 대표,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의 김종남 인큐베이터, 김창주 마을기업 멘토 각 세 명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마을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느꼈던 바와 개선해야할 점을 얘기하며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상섭 대표 : 서울시 마을기업 살아남기 전략

부제. 마을기업 제도의 개선방안 및 마을기업 당사자가 바라는 점

정부가 마을기업을 왜 지원하는 걸까? 정부는 마을기업더러 안정적 소득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라고 한다. 즉, 정부가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정부의 필요 때문이라는 얘기가 된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파야 할 우물을 대신 파고 있는 것이 마을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마을기업은 전문적이지도, 뾰족한 경쟁력도 없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시스템이 없으면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다.

①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의 기반은 마을공동체에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서울시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거나 취약하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당이 되도록 격려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지원시스템은 기업 설립을 컨설팅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¹⁰ 마을공동체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② 마을기업의 공동체 정체성

일반기업과 다른 마을기업의 큰 무기는 협동의 힘이다. 이 사례는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동의 힘은 참여하는 모든 이가 공평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비실용적이고 느려터진 운영시스템에서 오는 것이다. 힘들지만 다 같이 결정하고, 더디지만 합의한 후에 움직이고, 당장의 이윤실현보다 관계의 지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뛰어난 한 사람보다 보통의 여럿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③ 사회적 경제 생태계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죽어나가는 것. 그런 것이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다. 기존 시장시스템에서 틈새 영역이나 찾고, 돈이 안 돼서 아무도 덤벼들지 않는 영역을 경쟁 없는 블루오션이라 소개할 생각이라면 생태계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사회적 경제 대안은 뜻하지 않게 승자독식의 시장경쟁논리를 지지하고 존속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된다. 수많은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속한 이들을 시장 낙오자 집단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 서비스 영역을 값싼 노동력으로 전략시킬 수 있다. 경쟁력

¹⁰ 예를 들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다. 갓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신생아에게 인간이 되었으니 스스로 병원 문을 열고 나가 세상과 부딪혀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랑 다르지 않다고 김상섭 대표는 말했다. 두둑하게 용돈도 쥐어줄테니 2년안에 지역 자원을 찾아서 사업화하고 고용을 늘려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아니라 협동력으로, 승자독식이 아니라 공생으로, 생산수단의 독점이 아니라 공동체 소유로, 이윤의 독식이 아니라 호혜적 분배로 가는 대안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이런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이뤄져야 한다.

④ 혁신적 지원시스템

2013년 서울시의 마을기업 공모과정에 혁신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¹¹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혁신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⑤ 당사자 네트워크로서의 서울시 마을기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나니 해결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뭔가 묻거나 상의할 대상이 딱히 분명하지 않다. 이에 마을기업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해졌다. 서울시 마을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아직 준비위 조직이다. 하지만 천천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미래의 서울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준비하고 걱정한다면, 아주 소중하게 잘 키워야 할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자원과 제도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2) 김종남 인큐베이터 : 마을 경제 생태계와 마을기업

부제.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마을경제, 마을기업의 역할

① 마을기업은 무엇인가

2012년 초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수립을 위한 민관TF가 구성되어 마을공동체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서울형 마을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을기업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서울형 마을기업은 기존과 다소 다르게 마을필연성, 경영타당성, 공익성 등을 핵심원리로 제시하였다. 자립형 마을기업이 지원정책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스스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마을기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부터 논의되고 있는 마을기업 민간인증방식은 마을기업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② 마을경제라는 생소한 방향

대부분 주민들에게 마을은 경제활동과 어색해진지 오래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마을은 자족적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마을의 공동체적 관계망, 마을사람이라는 공동체성이 사라진 것만큼이나, 마을의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점점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데에서, 마을경제를 다시 주목하고 마을사람들의 힘으로 되살리려는 시도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며 꼭 거쳐 가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¹¹ 기존의 페이퍼 공모의 폐단을 해결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절차를 거치며 마을공동체와 지역관계망에 대해 고민하고, 사업계획을 되짚어 보고, 마을활동가가 될 것을 결심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③ 마을경제와 생태계

거대자본의 투입으로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이 압박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마을경제를 말할 때 거대자본의 영업행위,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경제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④ 마을경제 생태계의 구성요소로서의 마을기업

비록 수적으로 적고(전국에 1200개), 실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잘 것 없지만, 마을기업은 점점 피폐해지는 마을경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주민들이 스스로 출자하고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힘을 모으고, 내부거래를 통해 지속성을 키워나가다 보면 공동체와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경제행위가 가능하다. 아직 정책적으로 육성을 시작한지 15개월에 불과하여 평가를 하기엔 아직 이른감이 있다.

⑤ 마을경제 생태계 형성의 주체로서의 마을기업

그렇지만 15개월만 보더라도, 마을기업은 앞으로 그 수적인 열세나 적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기대 하게 한다. 우선 마을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운영기간이 늘어날수록 공동체적 관계가 생겨나거나 강화되게 마련이다. 어린이집, 카페, 동호회, 식당, 의료 생협 등 다양한 결과가 다시 공동체를 풍요해지게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마을기업은 마을경제 생태계의 다른 구성요소인 자영업자나 대형업체를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⑥ 공동체경제의 주체로서의 마을기업

이제 마을기업은 최소한의 규모를 갖추고 자기 존재를 알리는 단계에 있다. 개별 마을기업은 그 탄생과 육성과정에서 마을관계망으로부터 흡수한 자양분을 다시 마을 공동체로 되돌리는 선순환의 사이클에 참여하게 된다.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은 마을사람들의 관계와 소통과정이며, 공동체성을 확장하는 장으로 역할하고 있다. 여기에 인큐베이터라는 독특한 육성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마을기업 내부의 공동체적 관계를 깊게 하면서 동시에 마을기업 외부와의 관계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3) 김창주 팀장 : 마을기업 지원제도와 육성 프로세스 평가

부제. 마을기업 지원제도 및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김창주 멘토는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정책을 평가할 때 개별 기업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기업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마을공동체와 마을관계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는가를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토론회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금전적 물질적 지원보다 멘토링이나 인큐베이터에 대한 만족도를 더 꼽

은 점이 고무적”이라고 했다. 또한 육성 프로세스의 핵심인 씨앗기 외에도 창업기와 안정기에 있어서의 육성지원책에 대한 마을기업들의 욕구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프로그램이 필요할 듯¹²하다고 말했다.

3) 소결론

마을기업 토론회를 다녀와서 서울시 마을기업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지역에 걸쳐서 그 지역과 주민에게 적합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이 마을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과 연결 지어 봤을 때 CIC Association처럼 마을과 정부를 이어주는 중간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물론 두 기관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CIC Association은 경제적 이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마을기업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엄마 커뮤니티나 청년 커뮤니티처럼 관계중심에서 시작해서 수익성을 더해 발전된 형태가 마을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마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마을기업은 이제 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을 기업은 일반기업이 가지는 경쟁력보다도 협동, 관계망, 자발성을 통한 마을의 발전을 중요시해야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을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느린 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까지 급속도의 발전하고 빠른 생활패턴에만 익숙하던 한국 사회에 '느림'이라는 개념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고 느림을 실패라고 판단해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까지 빠른 경제 발전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느림'이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더 나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발전한 마을사례를 가져와서 느린 발전을 어떻게 잘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그렇기에 영국 마을공동체 탐사를 다녀올 수 있는 것이 더욱이 잘되었다고 생각했다. 마을기업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¹²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웹진 10호, <마을의 사업과 정책>, 2014. 02. 19

http://www.seoulmaeul.org/bbs/board.php?bo_table=webzin_bbs&wr_id=73&sfl=wr_4&stx=5

7. 서울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조은득씨



<그림 7> 중구 인큐베이터 조은득씨



<그림 8> 마을기업 안내서 PPT

1) 탐사 배경

마을기업 토론회에 다녀온 뒤 마을기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을기업들의 현장 이야기는 마을기업 토론회에서 알 수 있었지만, 마을기업 당사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일하는 ‘관’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었다. 특히 마을기업 당사자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터들이 있었는데 정확히 그들의 일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마을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에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큐베이터를 직접 연락해서 만나 뵙기로 했다.

2) 기관 설명

서울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란 노하우가 부족한 주민과 단체에 창업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보와 지원을 연결해 마을기업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한명씩 인큐베이터를 배치하여 창업에 필요한 지역의 자원과 정보를 연결해 주고 있다. 즉 마을기업 육성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며 마을기업당사자들의 안내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 기업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다.

3) 기관에서의 활동

3-1.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위한 빵을 굽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 때, 사업을 진행 하며 타겟 층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다. 그럼 국가에서 2년 동안 1인당 기본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역시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기본 인건비를 지원하는 2년이 지나고 나면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 망한다. 이처럼 국가에서 지원이 끊기면 유

지가 안 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뜻이 맞는 다섯 명 정도의 사람이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배당금이 높아지고 의사발언 권한이 커진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은 누구나 똑같은 공동의결권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의 수익의 10%는 법정적립금이고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단법인의 성격과 비슷하다. 사단법인은 후원회원이 되어서 그것으로 재정이 충당되며,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에는 국한이 없다. 30%가 법정적립금이고 40%정도를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 마을기업이 시작되면서 마을주민의 개념 역시 거주민과 그곳에서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공동체라는 것은 자주 모여야 하고, 자주 모이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리상으로 밀접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성립해야 한다. 때문에 걸어서 15분 이내를 마을로 정했다. 글로벌화 되면서 너도나도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정작 근처 이웃을 돌볼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 이웃이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을기업이 시작된 것이다. 마을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역시 조금 다르다. 마을지원사업을 기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도 성장해야 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만한 마인드도 성장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원리로 마을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다. 즉 정리하자면 마을(공동체)기업의 주민은 생활주민으로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에서 잠자고 있는 자원을 깨운 뒤 같은 생활 주민으로서의 고객과 함께 마을 안에서 신뢰, 협동, 공생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과 인큐베이팅 제도를 도입해서 창업 준비과정을 지원하게 했다.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과 다른 점은 공간지원형으로 공간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마을기업의 요건은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해야 하며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금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3-2. 마을기업

한국의 마을기업은 사회복지개념이 베이스이다. 마을기업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이 이익은 다시 마을공동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순환경제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

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감이 높다. 그곳에서 마을 모임을 가지면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즉 마을 사람들과 같이 도와가며 살 수 있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함 속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교육의 꼭 필요하다. 때문에 마을기업들을 상대로 서울시에서는 마을기업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점점 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현재는 기본교육에 덧붙여 심화교육이 필수로 실시된다. 심화교육에서는 마을과 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팀 워크샵은 4차까지 있다. 사업계획서 초안을 가져와서 마을기업 멘토들이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다. 사업의 방향이 맞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조언 받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의제발굴, 계획서제출, 주민워크샵(참여한 주민이 전부 다 모여서 멘토링 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은 선택사항이다.

청년들이 대표적으로 마을기업에 참여한 사례에는 '얼티즌 허브'가 있다. 청년들의 특징은 많은 아이디어와 실행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열정이 빨리 식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현재 센터에서 작업하는 것 중 하나가 시니어와 청년들을 합쳐서 그들의 장점을 서로 활용하는 것이다.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청년들의 에너지를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마을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청년마을기업을 장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홍보방안으로는 청년허브센터가 있다. 커뮤니티 공간 공모를 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뉴딜정책이라고 청년 고용을 약 60명 정도 하는 식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한국식 마을기업에서는 마을필연성, 자립가능성, 공공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마을기업이 마을에 정말 필요한지, 마을기업과 지역 내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성은 어떠한지, 우리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익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 지방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고 이익집단으로 묶이기 쉽다. 반면에 서울은 이익으로 만나기보다는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즉 일단 모이고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것이다. 결국엔 마을기업은 이익 창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을 위해서는 의리와 혈연으로 이루어진 마을기업을 지양해야 한다. 의리나 혈연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성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거절을 쉬이 하지 못한다거나, 권위자의 말에 거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모든 케이스마다 정관을 만들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

속가능한 마을 기업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이다. 이는 분란이나 문제의 소지를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마을기업이 행정이나 자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어려움 없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이 정책이 자생적인 사업으로 이뤄지고 주민의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마을기금이 있어야 한다. 재정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보고 있다. 남대문 쪽 방촌 주민들과 마을기업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기업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찾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다.

3-3. 마을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는 멋들어지는 마을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지역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소소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인큐베이터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평소에 각 지역의 시민단체나 자생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역사업을 많이 하고 마을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 말이다.

인큐베이터로서 한계점이나 발전가능성은 자치구와 인큐베이터 개인이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어 설명할 수 없다. 마을기업 당사자들은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 발을 빼버리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는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은 중구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고 다른 지역 인큐베이터는 또 다른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각 자치구마다 마을상담원 1~2명씩 배치되어 있고 마을인큐베이터는 한 명씩 배정되어 있는데 의외로 각 성향의 차이 때문에 소통이 서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교환도 생각보다 서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대치상태로 서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자치구가 50%정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단절이 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데이터는 남아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플랫폼은 모든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결론

마을 상담원과 마을 인큐베이터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은득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더라도 데이터는 남아있어야 차후의 마을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동감한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해온 영국의 마을공동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 역시 마을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성이다. 이후에 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주민들이 자립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가 비로소 될 것이다. 특히 청년 세대가 많은 참여를 해야 향후에도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될 것이다. 이에 조은득씨가 설명해준 것 중 하나인 시니어와 청년의 연결을 통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어진다면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년 양상도 중요시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학생인 우리 입장에서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 점이다. 청년들의 수많은 아이디어와 실행능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마을 커뮤니티를 주도한다면 마을공동체가 좀 더 활력이 될 것이다.

8. 얼티즌 허브

1) 탐사 배경

마을기업 토론회에서 오정익 대표의 사례 발표를 보고 우리의 키워드 중 하나인 ‘청년들의 마을공동체 참여’에 부합하는 사례라 생각되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실제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의 일에 참여한 사례를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재미있게 놀 것’인지를 고민하며 이런 놀이가 마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이번 인터뷰를 통해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청년으로써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을 직접 들어보기로 계획했다.

2) 기관 설명

얼티즌 허브는 이대 골목에 자리 잡은 마을기업이다. 지하1층은 공연장,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공간, 3층은 예술가 레지던스로 운영 중이다. 젊은 청년들이 모여 마을기업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스펙 쌓고 공무원 준비하던 대학생이었던 오정익씨는 <88만원 세대>를 읽고 대학생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고 충무로에 공간을 만들어 얼티즌 허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일부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림 92> 얼티즌 카페 내부



<그림 10> 인터뷰 중인 오정익씨

3)기관에서의 활동

3-1 마을공동체에서의 '청년'

육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마을공동체는 육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사실 뭉쳐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인데, 육아를 시작하는 나이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동도 30-40대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공동체도 의미가 있지만 마을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가 될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마을공동체에 있어서의 청년들의 역할과 활약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오정익씨는 젊은 사람들이 마을공동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활력 같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같은 것을 하더라도 조금 더 다르게, 다른 아이디어로 표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의 마을 공동체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셜 다이닝의 형태나 또는 큰 단위의 축제 등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는 살고 있는 집이 근처에 있어야 하고, 육아를 해야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주거나 생활단위로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체적인 새로운 상상과 실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대학교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얼티즌 허브이기에,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전에 위치했던 층무로와 달리 신촌과 이대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지만 그만의 특색 없이 획일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을, 얼티즌 허브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활동의 기획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3-2 얼티즌 허브의 활동

얼티즌 허브는 2013년 11월에 오픈해 아직 입소문이 나고 있는 중이다. 얼티즌 허브에 있는 카페는 조금씩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여러 사회적 단체와 협동조합이 공유하고 있다. 개강이 있는 3월에 축제를 통해 허브에 대한 소개를 한 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또한 3월 쯤 창업포럼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열기 위해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센터와 연계하고 있는 중이다. 얼티즌 허브 건물 앞에 있는 철도청 부지를 활용할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하다. 신촌기차역 앞 버려져 있는 철도청 부지는 공터로 있는 지 꽤 오래 되었기에 그 곳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얼티즌 허브는 입주자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 있어 같이 청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대문 주민들끼리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서대문구 거북골 마을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유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대문

구에는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지만 돈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기에 이분들의 집을 사 허문 뒤, 공동주택을 설계할 당시부터 입주자들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생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얼티즌 허브의 남은 과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 ‘재미’있게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얼티즌 허브의 목표이기에, 사람이 얼마나 모일 것인지, 사람이 모일만큼 우리가 매력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오정익씨는 말했다. 또한 민관협력에 관해서는 민의 자발성에 중요성을 두면서, 현재의 관계보다는 민이 관에서 조금 더 독립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3) 소결론

얼티즌 허브는 청년들이 마을공동체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아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정익 대표는 얼티즌 허브에서 허브를 내세운 이유를 얼티즌 허브가 뭔가를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한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한다.¹³ 즉, 얼티즌 허브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허브’이며 얼티즌 허브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이다. 현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지만 예전의 공간 대역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간이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엇인가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을 선뜻 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얼티즌 허브가 무엇인가를 ‘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다.

얼티즌 허브가 이대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면서 일대의 상권이 좀 더 살아날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에서 오정익 대표가 말했듯 사실 죽어있는 곳에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들어온 것 자체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대학교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얼티즌 허브가 청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축제와 놀거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축제와 놀거리 이외에도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인 창업포럼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접근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얼티즌 허브가 이대 골목상권에 자리 잡은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앞으로는 많은 시행착

¹³ 청아네의 ‘청년공간인터뷰’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호준(2013), [청년공간인터뷰] “얼티즌 카페를 소개합니다”

<http://myazit.tistory.com/category/%EA%B3%B5%EC%9C%A0%EC%B1%84%EB%84%90/%EC%B2%AD%EB%85%84,%20%EB%A7%88%EC%9D%84%EC%82%B4%EC%9D%B4>

오를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티즌 허브는 언제나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반겨줄 즐거운 놀이터가 될 것이다.

ii. 영국의 마을공동체 탐사

1. 브릭스톤 마켓 (Brixton Market)

1) 탐사배경

한국에도 상인회가 존재하지만 브릭스톤 상인회는 그들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이 한국의 상인회와 다르다. 또한 현재 은평 e품앗이에서도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브릭스톤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지역화폐는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의의가 있다. CIC의 형태를 띤 상인회의 특징을 알아보고 마을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탐사를 진행하였다.

2) 기관 설명

브릭스톤 마켓은 지역 상인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마켓으로서 Brixton Market은 런던의 대표적인 마을 시장이다. 일렉트릭 아베뉴(Electric Avenue), 팝스 로드 앤 브릭스톤 스테이션 로드 (Pope's Road and Brixton Station Road) 일대의 독립된 약 300여개 점포들이 브릭스톤 마켓에 속해있다. 매일 아침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게들이 문을 열며 각 요일마다 특색 있는 마켓이 진행된다.¹⁴

브릭스톤 상인회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브릭스톤 마켓과 브릭스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브릭스톤의 거리 상인들의 모임이었던 것이 1990년대 이후로 공식적인 상인회가 되었다. 2011년 11월에 상인회는 'Make it, grow it, sell it'시장을 시도했다. 이는 작은 지역 생산자와 기업가들에게 그들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으로 브릭스톤 상인회는 CIC로 발전했다.

CIC의 특성상 마켓의 이익은 개인이 아닌 브릭스톤 지역으로 환원된다. 때문에 브릭스톤 마켓 상인회의 활동은 브릭스톤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이어진다. 브릭스톤 마켓은 브릭스톤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더 많은 직업과 봉사 기회를 만들어주고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른 지역자선단체 혹은 공동체 단체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브록웰 커뮤니티 그린하우스(Brockwell Community Greenhouse)와 함께 길가에 식물심기 활동

¹⁴ 토요일에 지역 베이커리들이 모여 빵을 판매하는 시장인 베이커스 앤 플리 마켓(Bakers and Flea Market), 매주 두 번째 토요일에 열리는 핸드메이드 악세서리, 예술 작품 등을 판매하는 메이커스 마켓(Makers Market), 브릭스톤의 다양한 마켓 특징을 모두 섞은 브릭스 믹스 마켓(Brix Mix Market) 등이 그것이다.

을 진행함으로써 브릭스톤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3) 기관에서의 활동

3-1. 민관협력

램버스 카운슬은 브릭스톤의 수많은 공동체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한다. 때문에 사적 기업인 브릭스톤 마켓 상인회가 램버스 카운슬과 파트너십을 맺고 브릭스톤 마켓을 관리한다.

3-2. 주민자치

브릭스톤 상인회는 시장의 특성상 지역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지는 않는다. 토요일에 열리는 플리 마켓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그들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이 때 많은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만날 수 있다.

청년층의 참여도는 높지 않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마켓을 운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토요일에 마켓을 방문해 구경하거나, 플리마켓에 그들의 상품을 내놓는 정도의 활동에 그친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한 마켓 교육이나 홍보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마켓에서 만난 청년들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려 노력한다.

브릭스톤 마켓에는 버스킹 전용 공간이 있다. 날이 좋은 날에는 누구든지 그곳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으며 이러한 공간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서로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브릭스톤 마켓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는 마켓 내의 모든 상점에서 사용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일은 드물다. 그러나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하다.

3-3. 지속 가능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다. 마을 주민이 알지 못하는 마을 공동체는 마을 공동체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브릭스톤 마켓은 지역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진행한다. 마을 곳곳에서 리플렛을 나눠주며 마켓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젊은이들을 공략한다.

브릭스톤 마켓이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감은 지역 사람들이 생활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

드는 것이다. 브릭스톤 마켓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마켓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지역 주민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점점 세계화되면서 대형 마트가 보편화 되어가지만 브릭스톤 마켓 상인회는 브릭스톤에 지역화 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소결론

브릭스톤 마켓의 상인회는 CIC이기 때문에 내부 구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CIC를 통해 구청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시장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 한국에도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공동체 체제가 갖추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 살리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역 주민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장은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브릭스톤 마켓처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때 이루어진다. 이렇듯 마을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간이 시장이기에 브릭스톤 마켓의 상인회는 지역 시장인 브릭스톤 마켓에 초점을 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에도 마을마다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브릭스톤 마켓과 달리 개개인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장은 단순히 상인 개인들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 브릭스톤 마켓처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시장을 지역의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환경으로 만든다면 마을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Lambeth Council의 Future Brixton

1) 탐사 배경

영국 템즈 강 남쪽에 있는 브릭스톤 지역은 이주민이 많고 런던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정부기관인 램버스 구청은 2009년부터 “Future Brixton 퓨처 브릭스톤” 이란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크게 ‘Brixton Central’, ‘Somerleyton Road’, ‘SW2 엔터프라이즈 센터(Enterprise Centre)’, ‘Your New Town Hall’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퓨처 브릭스톤은 브릭스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주거와 생활환경 문제 등을 ‘지역적(locally)’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프로젝트이다. 특히 이러한 재개발이 관이 일

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머레이턴 로드 프로젝트에서는 브릭스톤 그린과 같은 민간 시민단체 또는 오발하우스라는 지역 극장과 연개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퓨처 브릭스톤의 사업 계획서인 SPD(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 브릭스톤 보충 계획 문서)를 공무원들이 직접 변화가에 나가 알리는 로드쇼를 개최하거나 워크숍을 여는 등, ‘거버넌스’형 재개발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램버스 구청을 찾아가 인터뷰를 나누기 위해 Town Hall로 향했다. 그곳에선 퓨처 브릭스톤 사업 중에서도 브릭스톤 그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머레이턴 로드 프로젝트 (Sommerleyton Road)’의 담당 공무원인 피트 (Pete Robbins)씨와 닐(Neil Vokes)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브릭스톤 지역의 민관협력과 주민자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2) 기관 설명

램버스 카운슬의 퓨처 브릭스톤 프로그램이란 브릭스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 재개발프로그램으로 주된 목적은 구청에 관할된 토지를 어떻게 지역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브릭스톤 센트럴, 서머레이턴 로드 등과 같은 주된 지역들의 특정한 상황들을 파악하는 일을 한다. 즉 퓨처 브릭스톤은 이 지역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해 지역공동체들과 함께 일하는 실질적인 기회인 것이다.

3) 기관에서의 활동

3-1. 민관협력

민과 관의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끌어낸 램버스 카운슬은 협동(Co-operative) 구청으로 다음과 같은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했다. 몇 년 전부터 지역 재개발뿐만이 아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행정 자체를 바꿔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뒤 램버스는 협동(Co-operative) 구청이 되었고, 협동 구청이 되면서 일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시민과 기관이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일을 할 때 함께 결정하게 되었다. 브릭스톤은 ‘공동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정체성(identity)을 가지고 있다. 램버스 구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과 장점을 브릭스톤을 발전시키는데 쓰고자 논의 중이다.

퓨처 브릭스톤의 재개발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로 이루어졌다. 만일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동체적으로 일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민관협력의 장점은 공동체의 동의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제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지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램버스 구청에서는 오픈된 공간에서 주민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금적인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은 개발의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민관이 함께 마을의 문제 해결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점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도전할만할(challenging) 것이라는 점이다. 이전의 재개발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사무적인 곳에서만 논의되었던 많은 양의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므로 지역공동체에 의해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이 프로젝트를 더욱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선 수많은 의견과 시각이 오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은 큰 도전과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도 단점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자원 등과 같은 노력이 이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3-2. 주민자치

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워크숍 프로그램들이 있다. 서머레이턴로드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는 재개발의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고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에 대해 토론함과 동시에 코멘트들을 지역 아티스트가 그림으로 담는다. 사람들은 대개 회의에서 나온 기록들을 보는데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회의 내용을 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좋은 방법이다.

현재 지역주민들과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같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워크숍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공지를 한다. 그 밖에 워크숍과 관련된 뉴스레터가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집에 발송되거나 이메일, 또는 지속적으로 퓨처 브릭스톤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다.

또한 젊은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램버스 구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브릭스톤 지역의 몇몇 학교들, 특히 서머레이턴 로드와 한 초등학교는 브릭스톤 그린과 연계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는 브릭스톤이 치안도 좀 더 좋아지고 많은 매력적인 바(bar)나 카페가 생겨 젊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램버스 구청 또한 협동 구청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아리나, 활동 등의 복지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젊은 계층이 자치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단

체인 ‘Young Lambeth Cooperative’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약 2만 파운드의 펀드로 젊은 계층을 위한 활동들이나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데에 쓰고 있다. 이 단체가 생김으로 젊은 계층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쉬워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서 젊은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3-3.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브릭스톤이 갖고 있는 철학(philosophy)은 다음과 같다. 브릭스톤 사람들은 브릭스톤이 런던의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른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곳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브릭스톤의 특별함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 특별함이 그들이 이곳에 살고, 일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원동력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브릭스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 없고 주택공급문제도 심각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자금 역시 매우 감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찾고 있다. 가만히 뒤에 앉아서 그 변화들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는 것 대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주민들에게 브릭스톤의 미래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브릭스톤만의 철학이자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가는 길이다..

3) 소결론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 재개발과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었지만 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개발의 상세한 내용을 정해나가는 재개발은 우리에게 있어 신선한 충격이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명확하게 잡혀있는 계획안과 워크샵이나 로드쇼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럽기도 했다. 램버스 구청과 지역주민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 자체가 브릭스톤을 살아갈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퓨처 브릭스톤이 지닌 힘은 ‘신뢰’이다. 퓨처 브릭스톤의 이러한 프로세스는 지역 주민과 구청의 신뢰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과정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친 이상적인 단계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워크샵들과 로드쇼를 개최하는 노력은 오늘날 ‘거버넌스’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말해주는 공무원들의 표정에서 퓨처 브릭스

턴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보였던 건 위와 같은 이유여서가 아니었을까란 생각을 했다.

3. Brixton Green

1) 탐사 배경

‘브릭스톤 그린(Brixton Green)’은 램버스 카운슬과 협력하여 브릭스톤 지역을 재개발 하는데 힘쓰는 민간단체이다. 주민과 구청이 협력하여 재개발을 이루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상황과 브릭스톤 그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을 활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민관협력의 장단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알고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탐구해보기로 하였다.

2) 기관 설명

현재 램버스구청과 함께 Future Brixton 사업의 일환으로 ‘서머리턴 로드 프로젝트(Somerleyton Road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 공간 마련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주택 문제(Housing), 고용 문제(Jobs and Employment), 문화사업, 지속가능성과 의료건강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들에게 안전한 거주 지역을 마련하고, 지역 사업에 활력을 넣음과 동시에 주민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오발하우스(Ovalhouse)를 통해 넓은 범위의 예술 문화의 장을 만들고, 다음과 같은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간다. 현재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서머리턴 로드에서의 사업 진행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찾아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에 반영한 뒤 램버스 구청과 협력하여 서머리턴 로드 이외의 곳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지난 4년 동안 브릭스톤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토의한 끝에 브릭스톤 그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재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한 일자리의 부족, 사회의 응집력 감소, 청년층의 참여부족이라는 영향을 분석했고, 서머리턴 로드 프로젝트를 브릭스톤 지역사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내의 응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램버스 카운슬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주주로 1,000 개 이상의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3) 기관에서의 활동

3-1. 민관협력

민관협력에 있어 장점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위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단점은 브릭스턴 지역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전달해야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 소통이 수월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브릭스턴 내의 멀리 떨어진 마을간의 정보교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과는 단절되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브릭스턴 그린 그룹은 램버스 구청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진행한다. 일주일에 1~2회 정도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램버스 구청과의 의견교류가 수월하다. 또한 브릭스턴 그린 워크샵에서는 브릭스턴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참석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곳에는 램버스 구청의 공무원과 마을 공동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여한다. 이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민과 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3-2. 주민자치

브릭스턴 그린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지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 때 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워크샵에서 의견 제시의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진다. 그 결과 현재 브릭스턴 그린에서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브릭스턴의 발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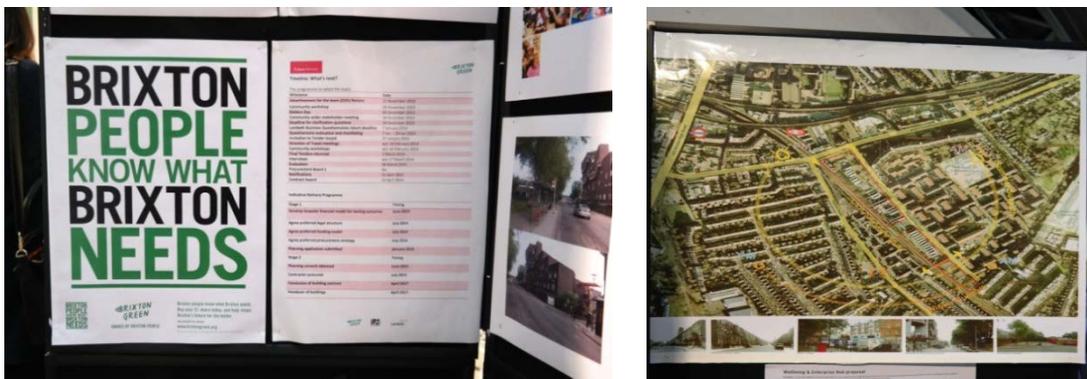
특히 청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에는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도 대여한다.

3-3. 지속가능한 공동체

그들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있는 마을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브릭스턴 그린은 워크샵 등을 통해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와 전화, 워크샵, 행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제안이 가능하다. 브릭스턴 지역에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16 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직 1파운드만으로 브릭스턴 그린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주주는 브릭스톤 그린 위원회와 매년 진행되는 브릭스톤 그린 회의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더 나은 브릭스톤 환경을 만드는 데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나타나는 이익은 개인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특히 워크숍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로 설명하였다. 이것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원하는 마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계속 해서 공동체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그림11,12 브릭스톤주민들의 의견과 브릭스톤 그림의 활동을 담고 있는 포스터>

4) 소결론

브릭스톤 그린은 램버스 구청과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브릭스톤 그린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구청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자주 그들의 회의에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수시로 확인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공무원들 간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비하다고 느껴졌다. 지역 단체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에 속해있는 직원들도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과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배워야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의 관에서는 경제적, 행정적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 사람들 간의 소통의 장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브릭스톤 그린 관계자는 워크숍을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언어와 환경의 장벽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기를 기대하기 전에 공동체 그룹은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이라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할 것을 느꼈다. 한국에서 마을 공동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와 관계된 사업도 많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번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효율적으로 지역 사업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4. CIC Association

1) 탐사 배경

¹⁵CIC는 community interest company의 약자로 1994년에 시작되었다. 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 기업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CIC Association과 Regulator에 의해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Community interest company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나타나는 수익의 일부분은 공동체를 위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달 100개 정도의 다양한 규모와 활동을 가진 CIC가 법적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8700개 정도의 CIC가 존재하고 있다. ¹⁶사회적 기업의 의미가 보편화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CIC 인증이 그들을 신뢰성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게 한다.

이처럼 CIC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CIC 형태를 띤 기업들이 많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CIC Association의 구체적인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기관 설명

¹⁷CIC Association은 CIC라는 사회적 기업의 종류를 등록시키는 일을 관할하는 또 하나의 CIC이다. CIC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비즈니스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에서 실행하는 Community Interest Test를 거쳐야 한다. 인증을 신청한 사회적 기업이 CIC의 명함을 달기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회사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존재하는 가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매년 자세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CIC 내에서

¹⁵ 위키피디아, Community Interest Company

¹⁶ Social Enterprise UK에 따르면 영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7만 개다. 이 곳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 경제적으로 240억 파운드(42조억 원)을 창출한다.

¹⁷ CIC는 CIC Association과 이들이 등록시키는 사회적 기업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CIC¹⁸ Regulator에 의해 감시된다. 이들은 법적 규제를 가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그들이 CIC에 가하는 가장 특징적인 규제가 Asset-lock이다. CIC가 그들의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 목적을 인지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CIC Association은 CIC에게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CIC와 정부의 소통망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CIC가 바라는 점과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IC는 다양한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CIC라는 개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3) 기관에서의 활동

3-1 CIC 네트워크 망

CIC Association은 3,200개가 넘는 CIC 멤버들이 있으며 온라인 포럼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CIC에게 질문을 받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CIC들은 피드백을 받는다. CIC Association이 내놓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영국의 비즈니스혁신기술부가 CIC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CIC Association의 목표 자체는 CIC라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제시한 획기적인 CIC 법규가 하나의 브랜드화 되고 랜드마크화되는 법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CIC Association 홈페이지에는 CIC Online(<http://cicassoc.ning.com/>)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있다. 이곳에 가입되어있는 3,200이 넘는 CIC에 관심이 있거나 CIC를 운영하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활동들에 대해 글을 쓰며 알리고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망 조직을 통해 CIC를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 비즈니스사업혁신부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CIC들끼리도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서로 도우며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3) 소결론

영국의 마을 공동체에는 CIC형태의 시장 혹은 단체들이 많이 존재했다.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게 CIC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CIC연합을 통해 서로간의 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 이익 회사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과 미국, 홍콩으로도 확장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¹⁸ Regulator는 CIC 지원 기업을 심사하며, 등록된 CIC에게 법적 의무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을 기업의 형태가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 정부에서도 마을 기업에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을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 CIC Association은 적극적인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조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기업 사업도 영국의 CIC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체계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마을 기업들이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실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고, CIC Association과 같은 민간 조직이 결성되어 적극적인 교류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 청년 참여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활동에서든 청년들의 참여율 부족은 문제가 되곤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영국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John씨에게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했을 때, 그는 우리가 참여하면 된다는 간결하지만 매우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다. 제3자에게 청년 참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한국과 영국에서 마을 공동체에 대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5. Brent Council의 재개발 사업과 Meanwhile Project

1) 탐사배경

브렌트 카운슬은 지역 단체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관할 지역의 재생과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 재개발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빈 공간을 활용한 '민와일 프로젝트 Meanwhile project'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킨 브렌트 카운슬의 재개발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탐사를 결정하였다.

2) 기관 설명

브렌트 카운슬은 런던 북부 지역인 웹블리 Wembley, 사우스 킬번 South Kilburn 등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다. 런던 외곽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브렌트 카운슬의 관할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때문에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재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과 함께 브렌트 카운슬은 '민와일 프로젝트 Meanwhile project'란 기치 아래 '가볍고, 빠르고, 값싼 lighter, quicker, cheaper'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Meanwhile 잠시 동안' 이란 그 이름 뜻대로 하루 이틀, 몇 주, 혹은 몇 개월 안에 현지 지역에 대한 개선을 제공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브렌트 카운슬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그룹이 일시적인

사용이나 또는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빈 상업용 부지를 사용하고, 브렌트 카운슬은 지원 및 관리 조치를 제공하는 민와일 브렌트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있다.

이러한 민와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브렌트 카운슬은 ‘민와일 파운데이션 Meanwhile Foundation’이란 기관을 만들었다. 민와일 파운데이션은 주요 및 자본 집약적인 재생 프로그램과 함께 임시로 사용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민와일 파운데이션은 자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관리하고, 지역의 소유권과 관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디자인하기 위해, ‘로컬리티 Locality’라는 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 모델은 ‘비어 있는’ 속성을 가진 공간들의 임시 사용을 촉진하고 그들에 임차를 수행할 수 있는 민와일 파운데이션이라는 새로 형성된 국가의 자선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런던의 여러 다른 자치단체도 민와일 프로젝트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 이 단체에 가입해 있다.

브렌트 카운슬의 민와일 프로젝트 중 하나인 코트렐 하우스 Cotrell House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역의 패션디자이너의 작업 공간, 카페, 지역 아티스트의 그림 전시 공간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3) 기관에서의 활동

3-1. 민관협력

브렌트 카운슬은 매우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 협력한다. 협력 조직마다 각자의 목표가 있어 모두가 동일한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브렌트 카운슬은 지역의 공동체 그룹,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브렌트 카운슬은 협력하는 단체들 중 보통 특정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돕는다. 예를 들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주고, 크라우드 펀딩을 도우며 단체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브렌트 재개발 전략을 자세히 보면 ‘웹블리 스타디움, 웹블리 아레나 그리고 브렌트에 있는 다른 사업체들이 현재와 미래의 이웃들과 조화롭게 공존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다. 스타디움, 아레나, 그리고 다른 사업체의 건물처럼 거대하고 보기 좋은 빌딩들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서도 쓰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 브렌트 카운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역적인 활동이 웹블리 스타디움이나 아레나와 같은 사업체들과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축구 경기장이 있는데 그러한 축구 경기장의 대부분은 맨체스터 시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특정 팀들의 홈구장으로 이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매주 경기를 보러 가곤 한다. 웹블리 스타디움은 세계적

으로 유명하고 큰 경기장이지만 다른 구장들과 다르게 로컬 축구팀이 없다. 큰 경기는 일년에 20번 정도 열리고 축구 경기 이외의 다른 이벤트들이 간간히 열리는 정도로 다른 대도시의 축구 경기장에 비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웹블리 스타디움이 지역적으로 어필되는 기회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웹블리 스타디움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자선 단체를 만들어 웹블리 지역 학교와 연계해 활동하거나 웹블리에서 벌어지는 지역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브렌트 카운슬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알맞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민와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민와일 프로젝트는 2년 전 브렌트 카운슬 관할에 있는 사우스 킬번에서 시작되었다. 사우스 킬번은 주거환경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브렌트 카운슬은 그곳의 낙후된 집과 건물들을 발달시켰다. 민와일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사우스 킬번 스튜디오에서 일을 전달했다. 5개월 동안 이어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와일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업상의 요령들을 나누며 서로 언어를 가르치는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그 뒤 브렌트 카운슬은 민와일 프로젝트의 일환인 '커밍순 클럽 Comingsoon Club'을 웹블리에서 시작했다. 커밍순 클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진행된다. 커밍순 클럽은 매우 단순한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웹블리의 주민들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그것들을 진행시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커밍순 클럽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로 커밍순 클럽에서는 예술 활동, 전시, 개인 사업, 자전거나 옷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쉽게 지역 사람들을 모으고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커밍순 클럽은 브렌트 카운슬의 사업에서는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민와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브렌트 카운슬에 직접 찾아가거나, 트위터 등 온라인을 활용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와일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등록이 될 경우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에든 참여가 가능하다. 브렌트 카운슬은 커밍순 클럽을 만든 후 지난 2년간 대략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했다. 현재는 다른 마을에서도 그 활동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

브렌트 카운슬은 프로젝트들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와일 파운데이션 Meanwhile Foundation'이라는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다. 런던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재단에 참여하여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브렌트 카운슬은 민와일 프로젝트 외에도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브렌트 지역의 개발자들과 앞으로 10년 동안 supportive하고 affordable한 아트 스튜디오, 사무실, 공동체를 위한 공간들을 만드는 사업이 그것이다. 개발자들이 건물을 만들면 브렌트 카운슬에서

는 공간이 필요한 단체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건물 중 일부는 순수하게 공동체의 프로젝트를 위해 제공될 계획이며 이 공간들은 일반적인 임대비용의 50% 수준의 가격으로 브렌트의 지역 단체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3. 지속 가능한 공동체

웹블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또 그 사람들이 빨리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는 지역이었다. 영국에 처음 이주해오거나 돈이 없는 대가족들이 웹블리 지역에 이주했다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오랫동안 반복되어왔다. 현재 영국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주택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5~10년 사이에 들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에 있어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들의 개발로 인해 사람들의 이주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전입하고 또 빠르게 이주해나가기 때문에 주거생활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은 브렌트 카운슬에 주어진 또 다른 과제이다. 또한 웹블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대다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지속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런던은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년 전의 런던 폭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붕괴다.'라고 말하기도 할 만큼 런던의 사람들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와일 프로젝트와 같이 젊은 사람들 참여하는 많은 작은 활동들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민와일 프로젝트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편이고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와일 프로젝트는 젊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3) 소결론

브렌트는 주거문제와 맞물려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질 문제를 재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와일 스페이스는 그러한 재개발의 방법 중 하나로, 비어있는 공간을 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서 주민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간을 대여하는 시스템과 그를 위한 자금 마련을 조달할 수 있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냈으로써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민와일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6. Calton Kitchen

1) 탐사 배경

'칼튼 키친 (Calton Kitchen)'은 브렌트 구청이 주도하고 있는 민와일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브렌트 구청 관할인 사우스 킬번 지역의 ‘음식’을 테마로 한 공동체이다. 브렌트 구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민와일 프로젝트의 예로 알버트와 칼튼 키친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민관협력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2) 기관 설명

칼튼 키친의 목적은 사우스 킬번 지역에 건강과 웰빙을 개선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카페와 이벤트 공간을 제공하고 또 음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의 사업에 작업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칼튼 키친은 마을 기업 ‘코셔 로스트 Kosher Roast’와 ‘그로잉 컬처 Growing Kultur’, 그리고 자선단체인 ‘수프라 NW 런던 Sufra NW London’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마을 기업들은 칼튼 키친의 주민미식가(residents foodies)이며, 이 공간에서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행사 및 계획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칼튼 키친은 주방 에는 야외에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공간을 관리하는 마을 협동 조합인 ‘필드 투 포크 오가닉스 Field to Fork Organics’와도 일하고 있다. 칼튼 키친은 브렌트 구청 산하에 있는, 브렌트 지역의 13,600 개의 구청 자산들을 관리하는 회사인 ‘브렌트 하우스링 파트너십’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¹⁹

칼튼 키친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샐러드 등을 위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텃밭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마을협동기업인 푸드 박스가 지역 농부들과 작물을 기르고 유통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제과제빵 워크샵, 천연 화장품 워크샵,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푸드뱅크, 사람들에게 요리법을 알려주는 워크샵 강좌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기관에서의 활동

3-1. 민관협력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연령층이 참여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모든 연령층이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여겨진다. 마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활동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이후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함께 일하고 있는 브렌트 구청에도 전달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의 방식을 통해 브렌트 구청과 소통하며 칼튼 키친을 운영하고 있다.

3-2. 주민자치

¹⁹ <http://www.meanwhitespace.com/projects/current/carlton-kitchen/>

칼튼 키친이 생기기 이전에는 아무도 쓰지 않던 비어있던 공간이 이제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 찾는 공간이 되었다. 칼튼 키친이 주민에게 미친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 근처에 사는 한 케이크를 만드는 여성은 칼튼 키친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워크샵 등을 진행하며 마을 주민들과 소통한다. 즉 주민들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사람들에게 여러 기회를 무료로 혹은 값싼 공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3-3. 지속가능한 공동체

칼튼 키친은 공동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음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카산드라씨는 공동체에 있어서 ‘음식’을 주제로 잡은 것이 중요하다기 보단,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공간을 주고 사용하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음식’을 예로 들면, 음식의 영향력은 광대하다. 그것은 욕구(need)이자 요구(want)이며 실제의 모든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업에 참여시키고 푸드뱅크를 통해 도울 수 있고 음식을 통해 사업을 꾸려나갈 수도 있다. 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이러한 것들이 지속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칼튼 키친은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있는 것이다.

3) 소결론

칼튼 키친의 경우 음식이란 주제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점은 처음에는 사실 의아한 점이 많았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일상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음식을 다루는 것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고만 있던 것이다. 인터뷰를 하고 난 뒤 음식이라는 친근한 소재로 민와일 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잘 살린 이 프로젝트는 그 친숙함이 더욱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한 친숙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소통하고 있었으며 상부상조하며 마을공동체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마을공동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활동들은 어떤 행정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튼 키친처럼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초점을 맞춰, 특히 각 연령층에 대해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마을공동체가 한 연령층에 분포되어 점과 비교해서 살펴볼 때 많은 부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7. The Albert

1) 탐사 배경

알버트 프로젝트(The Albert)는 민와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 빈 거리를 지역 예술가와 창조 단체 혹은 지역 주민이 새로운 거리로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마을의 거리 환경을 위해서 고민하고 직접 마을을 꾸미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의미를 알아가게 된다. 알버트 프로젝트는 사회적인 건물과 공간을 창조해내는 그룹인 '왓이프 프로젝트 What if: projects'에 의해 디자인 되고 만들어졌다. 왓이프 프로젝트가 알버트를 구상하게 된 계기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기관 설명

'The Albert 알버트'는 실험적인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와 지역커뮤니티의 웰빙을 위한 팝업(pop-up:떴다 사라진다) 개념의 공간을 기반으로 한 활동으로 브렌트 구청의 민와일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다. 사우스 킬번 지역에 있는 알버트 로드를 건축가, 목수, 예술가, 지역의 건설팀이 함께 모여 이 새로운 예술과 지역사회의 웰빙을 위한 일시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브렌트 구청은 지역의 창조적인 사회적, 문화적 자분을 향상시키고 사우스 킬번에 있는 자산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알버트는 그저 버려지고 빈 공간으로만 남겨질 수 있었던 이 장소를, 지역 공동체와 창조적인 개인과 단체가 함께 색다른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혁신적인 민와일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도했다. 다양한 예술가, 요리사, 댄서, 안무가 등이 이 알버트 센터에서 흥미롭고 새로운 활동, 워크샵,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였고 많은 긍정적인 반응과 성공을 얻었다.

지금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지역이 브렌트 카운슬로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작업들은 철수되었고 새롭게 재개발 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지역 개발을 위한 건물을 짓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토의를 거치고 있다.

3) 기관에서의 활동

3-1. 민관협력

알버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브렌트 카운슬과의 소통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왓이프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구청의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보완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한다. 알버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사우스 킬번이라는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다 보니, 구청의 사람들이 자주 방문해왔다.

하지만 민관협력의 부분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성을 말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단체의 의견을 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에서 그칠 때가 많았다. 알버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둘러만 보고, 그들은 알버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책임감과 신뢰성을 잃기도 하였다고 말한다. 지역 주민이 마을에 요구하는 것을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단지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올바른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알버트 프로젝트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 직접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3-2. 주민자치

알버트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었고 공공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특성상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알버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을 활동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온다던지, 가족들은 거리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서 주말을 보내곤 하였다. 알버트 프로젝트는 자신의 마을에 무관심했던 주민들도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는 문화 행사를 보면서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주민인 한 축구 코치는 알버트의 공간을 싸게 대여 받아 저녁에 주민들을 위한 축구교실을 열었다. 알버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브렌트 지역의 민간단체는 자발적으로 메일과 트위터를 통해 프로젝트를 알리는 데에 힘썼다.

3-3. 지속가능한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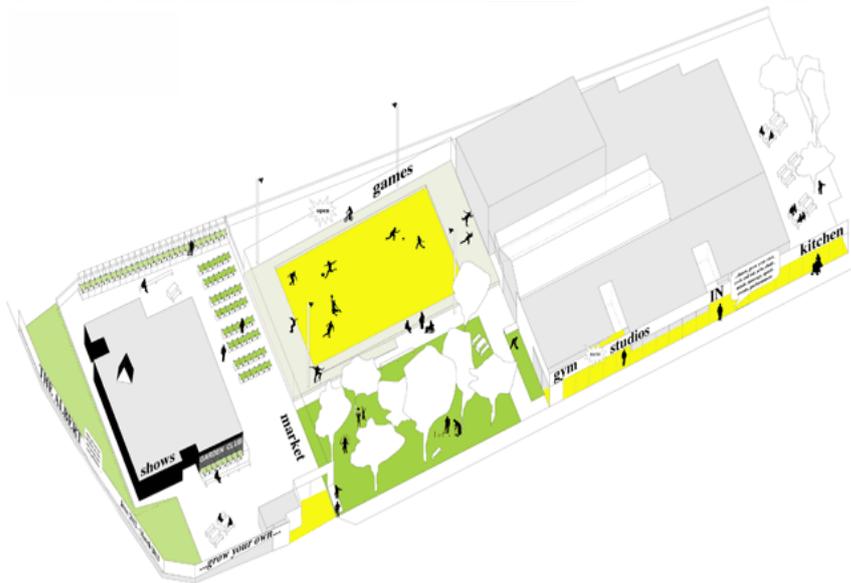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알버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곳에서는 예술가, 학생,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지역 구청은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었으며 원하는 거리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오픈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4) 소결론

알버트 프로젝트는 민와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마을 거리 문화를 위해 힘써왔다. 거리라는 특성상 지역 주민들은 오며가며 마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예술 작품의 전시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그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었다. 알버트 프로

젝트는 문화 행사를 통한 마을 공동체의 단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였다. 한국의 마을에도 버려진 거리가 많이 존재한다. 이 곳에 지역 주민 혹은 예술가들이 아름답게 가꾸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국형 거리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구청과 마을 공동체 관계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민관협력 부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구청 관계자들은 직접 활동을 운영하는 마을 활동가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단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으로 마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구청 관계자들이 단순히 마을 활동을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들이 지역 주민의 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3> 알버트 프로젝트 <그림 14> 인터뷰 중인 Liam 씨

<그림 15> 알버트 조감도

8. Headingley Development Trust

1) 탐사 배경

공동체가 처해져 있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해나갔던 과정과 이곳의 ‘헤딩리 개발 신탁 Headingley Development Trust, 이하 HDT)의 구체적인 활동과 그것이 공동체에 가져다 주는 영향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자치적인 기관이, 관의 도움이 없거나 최소화되어 독립적인 조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HDT를 다녀왔다.

2) 기관 설명

헤딩리는 영국의 Leeds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의 HDT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마을 기관이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가진다. “Working for the future Headingley” 가 그들의 목표이다.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HDT 운영회 구성원들의 모임을 가진다. 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얻고 그것을 공동체에 환원함으로써 헤딩리를 다른 마을과 차별화하려고 노력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HEART, FARMERS MARKET, ORCHARD, FOOD STORE 등이 있다.

3) 기관에서의 활동

3-1 주민자치

1970년대에 헤딩리는 대표적인 두 대학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고, 오만여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오래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학생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지역문화가 바뀌면서 많은 펍이 생겨남과 동시에 유흥문화가 발달하고, 오래된 가게들이 문을 닫고 패스트푸드점이 생겨났다. 밤마다 들리는 소음과 술 취한 학생들 때문에 원래 거주하던 가족 단위의 사람들은 점차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 건물에 있던 초등학교와 같은 곳엔 어린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결국 2006년에 이 학교가 폐교되자 지역 사람들은 이 건물이 더 이상 대학생들의 유흥문화를 위한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많은 지역 사람들과 이 학교에 다녔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 공간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HDT를 설립했다. 그 노력으로 인해 스스로 돈을 모아 이 건물 전체를 얻어 지금 이 상태로 변형시켰다. 돈을 더 모으면서 HDT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HDT는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본적인 법적 단체는 모두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일인당 5파운드의 조합가입비를 내고 구성원이 된다면 일인당 하나씩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공동체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그 투표권 역시 이를 위해 쓰인다. 지역 시장, CAFÉ SIENTIFIQ, HEART, 그리고 플리마켓과 같은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그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다른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들은 모두 TRUST의 멤버로, 이 건물에서는 대략적으로 4~50명 정도의 자원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4~50명정도의 봉사자들은 다른 프로젝트 운영을 돕고 있다.

HDT는 매 년 한번 큰 회의를 통해 구성원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역 주민들은 와서 모르는 것을 묻는 장을 가진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이 마을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얘기할 수 있다. 실제로 5년 전에 지역 마켓을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와서 헤딩리는 이러한 마켓을 꼭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 실행에 옮겼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져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람들이 어울려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축제를 기획했고, 이번 6월에 첫 번째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3-2 민관협력과 관으로부터의 독립

HDT는 구청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다. 운영보조금을 조금 지원받고는 있지만 그 정도도 턱없이 적은 양에 불과하다. 때문에HDT는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말해도 무방하다. 심지어는 구청의 사람들이 HDT의 회의실을 빌리기도 할 정도다. 관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지원이 적기 때문에 내일 당장이라도 이 건물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린다 씨는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HDT가 관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것은 HDT의 하나의 강점이다. 의회에 이끌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역 주민이 원하고 공동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HDT의 계단과 복도 곳곳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들은 무료로 이 공간을 빌린 뒤 그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나온 수익금의 20%를 HDT에 낸다. HDT의 위층에는 사기업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그들은 2주 전쯤에 예약을 해서 돈을 내고 사용한다. 회의실 또한 예약이 가능하다. 대학생 혹은 다양한 단체들이 자주 예약을 하곤 한다고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운영비에 쓰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간활용을 통해 수익금을 내고 마을공동체를 위한 HDT의 운영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3-3 청년

HDT의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린다 씨는 말한다. 특히 청년들이 HDT의 운영회 구성원이 되어 일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이 마켓을 활용하고, 카페에 찾아오는 것은 쉽지만 직접 HDT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대학생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들의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꾸준하게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조한 청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HDT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먼저 HDT를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홍보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켓에서 위원회 사람들과 여러 멤버들이 가게를 열고 HDT와 HDT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이것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이 건물의 게시판을 활용하곤 하는데 청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3) 소결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HDT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영국의 마을 공동체를 탐방하기 전에 소통을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마을 관계자들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마을 내에서 이웃과 자주 마주칠 수 있고 이야기 나누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시했다. 우리는 지역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자리를 마련해야지만 마을 공동체에 관한 의견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인위적인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반문했다.

또한 HDT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1층에 있는 HEART 카페에는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윗층의 공간은 대학생 혹은 단체, 기업들에게 대여하여 회의를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HDT에서 진행되는 마을 축제와 행사, 예술 작품 전시 혹은 결혼식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쉽게 그 곳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마을 주민센터와는 같은 용도이지만 확연히 다른 분위기에 한국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국에 비해 한국의 경우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다고 느껴졌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서비스와 지역 정보 제공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관에게 제안

1-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민과 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럼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리고 워크숍을 통해 다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지속적인 워크숍은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영국의 민와일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영국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재개발, 지역 재생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민와일 스페이스’였다. 공간이 있어야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주민들이 모여야 이야기가 나오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민와일 스페이스는 바로 이런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2008년에 전국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모두 661구역, 그 중에 재개발이 시행되지 않았던 구역이 모두 165구역이다. 이는 한국에도 이처럼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기 직전의 유휴공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재건축 이전의 건물들 뿐 아니라 얼티즌 허브 앞의 철도청 부지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는 이러한 유휴공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민와일 스페이스처럼 유휴공간을 일시적인 주민들의 공동공간으로 만들어 활성화시킨다면 공간의 낭비가 줄어들고 주민들이 공동공간이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의 마을공동체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때 조급한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는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램버스 구청의 경우 퓨처 브릭스틴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방법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이를 재개발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바꾸지 않는다. 또한 램버스 구청은 또한 여러 번의 워크숍을 통해 민관이 한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한국도 기존의 경직된 분위기의 공청회 형식에서 탈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1-2. 마을공동체 관리 공무원

마을 기업은 관리하는 마을 인큐베이터 혹은 구청 관계자들은 직접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구청에 전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알버트 프로젝트의 관계자가 말했듯이 단순한 관리자로 남아 멀리서 마을 활동을 지켜보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야한다. 한국의 마을공동체 관리자들은 적극적으로 마을 활동에 참가하고 지역 주민과 의견을 상호 교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마을의 콘텐츠 자체를 이용한 홍보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을에서 열린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탐방 교실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기 지역의 역사탐방을 하는 뿐이 나오는데 역사탐방 교실을 알게 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너도나도 역사탐방 교실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로 많은 주민들을 끌어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를 홍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콘텐츠의 개발이 효과적인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마을인큐베이터 혹은 관계자들은 마을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민에게 제안

2-1. 지역 내 마을 공동체 관리자

은평e포마켓, 얼티즌 허브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관리하는 지역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브릭스톤, 웹블리, 사우스 킬번과 헤딩리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영국의 지역 네트워크의 특징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그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웹블리의 코트웰 하우스, 사우스 킬번의 칼턴 키친, 헤딩리의 허트가 그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허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관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 그들이 마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주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기를 바란다. 또한 정기적으로 워크숍이나 공유 포럼 등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 조금씩 마을공동체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2. 지역 주민

마을에 속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마을에 일어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한다. 마을을 주거하는 공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생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공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구청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공동공간을 창출한다면 주민들은 워크숍에서 그들이 원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 공동공간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영국에 비해 주민자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국과 한국의 마을 사업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민의 자립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외친다. 마을 인큐베이터 조은득 씨는 주민공모사업의 진행을 공무원들이 맡아 했으나 이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들려주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자립성이 높지 않는다면 관의 지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 HDT와 같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3. 정리하는 말

우리는 마을은 무엇인가라는 커다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 탐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민관협력과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재생 및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한국과 영국의 마을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마을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마을 만들기가 시작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시행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영국으로 탐사를 가기 전에 영국의 상황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영국의 마을은 우리의 마을과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등이 조금은 달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정확히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시간에 쫓겨 한국과 영국에서 마을 활동에 직접 참여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우리는 한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고 해외 탐사를 마친 후에 우리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생각이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그들도 모두 안고 있는 것이었다. 국가적 특성이 마을공동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오랫동안 발전해온 영국의 마을들도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한국의 마을공동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과 그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 회복이 기반이 되어 그 위에, 혹은 그를 위한 부수적인 마을에서의 자치적인 문화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지는 것과 다르게, 영국의 마을공동체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함께 실현시키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영국의 마을공동체의 분위기 때문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곳도 있었다. 사전 조사 시에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내용을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관협력과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의 재생과 재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떠난 영국 탐사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의 마을공동체와 영국의 마을공동체는 그 의미가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의 마을공동체란 주민들 간의 관계와 나눔, 공유 등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회복’ 중심의 동 단위 정도의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영국의 마을공동체는 ‘관계회복’이 아닌 ‘마을의 재개발’ 혹은 ‘마을 재생’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모이는 지역 주민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의 마을공동체와 영국의 마을공동체는 사업의 내용이나 민관협력의 방향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공동체에 반해 한국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이미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비교적 순탄하게 주민들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가나 한국에서는 아직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관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하향식의 지원을 하기 보다는 민과 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오갈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영국 런던의 민와일 프로젝트와 같은 유희공간을 임대로 마을공동체 조직에 대여해 마을의 문화나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방식을 도입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제안했다. 이 모든 과정이 천천히 적절한 속도로 운영되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마을공동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단순한 관리자로 남아 마을 활동을 지켜보는 데에 그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마을 활동에 참가하고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교류해야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 아직 대중적이지 못한 마을공동체를 알리는데 노력해야 한다.

민간에게 있어선 지역 내 마을공동체 관리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영국에서는 마을공동체 조직 간의 지역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의 허브와 같은 조직도 만들어져 있기도 했다. 이러한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공유포럼을 통해 자신의 마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관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이는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공동체 가치를 실현시킬 수도 없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되 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마을공동체가 아닌 민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마을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을 주민들 스스로 찾아나가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을이란 어느 하나에게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전적으로 명확히 마을을 정의를 내리다가 보다는 마을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지와 우리의 가능성을 본 것이 해외탐사를 통해 얻은 답인 듯하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탐사를 통해 마을은 주거공간과 생활공간을 기반으

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가치의 힘은 우리가 이번 탐사를 통해 배운 가치 중 가장 깨달음이 컸다. 마을은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 이웃 모두를 위한 공동체적 가치가 발현해 내는 또 다른 가치들에 그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비록 영국의 마을은 그 관계보다는 지역의 공동체적 이익에 좀 더 중점을 두었지만 그 역시 나와 이웃 모두를 위한 공동체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탐사에서 배운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는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세대인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만의 공동체 모임을 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계획이다. 이번 탐사를 통해 배운 공동체적 가치를 나와 이웃을 위해 사회에서 실천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자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탐사였다.

□. 참고문헌

김수경 「협력적 거버넌스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2013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마을의 귀환,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에 가다』, 2013

니시야마 야스오, 니시야마 야에코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만들기』, 2009

인간도시 컨센서스, 『마을로 가는 사람들』, 알트, 2012

<참고사이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마을로의 여행, '마을공동체 강연' 펼쳐진다>, 2013. 10. 13.

<http://www.acrofan.com/ko-kr/live/news/20131013/00000021>

<서울시, '2014 마을기업 토론회' 개최>, 뉴스1, 2014. 01. 16

<http://news1.kr/articles/14978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웹진 10호, <마을의 사업과 정책>, 2014. 02. 19

http://www.seoulmaeul.org/bbs/board.php?bo_table=webzin_bbs&wr_id=73&sfl=wr_4&stx=5

청아네의 '청년공간인터뷰' 이호준 <얼티즌 카페를 소개합니다> 2013

<http://myazit.tistory.com/category/%EA%B3%B5%EC%9C%A0%EC%B1%84%EB%84%90/%EC%B2%AD%EB%85%84,%20%EB%A7%88%EC%9D%84%EC%82%B4%EC%9D%B4>

Meanwhile Space 홈페이지

<http://www.meanwhitespace.com/projects/current/carlton-kitchen/>

The Albert 홈페이지

<http://www.thealbert.org.uk/>

Brixton Green 홈페이지

<http://www.brixtongreen.org/>

Brixton Market 홈페이지

<http://brixtonmarket.net/>

CIC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www.cicassociation.org.uk/>

HDT 홈페이지

<http://www.headingleydevelopmenttrust.org.uk/>